

경계 사라져 가는 현대미술 조명

현대미술가회 회원전

29일까지 무등갤러리

여류 미술가들의 모임인 'WWW 현대미술가회'(회장 정예금)가 '포옹'을 주제로 29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회원전을 갖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전시에서 참여 작가들은 재료와 소재, 형식 등 미술 전 분야에서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현대 미술의 새로운 경향을 작품으로 조형한다.

한국화, 서양화, 섬유, 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업하고 있는 14명의 작가들은 100호 이상 대작을 통해 관람객들을 만난다.

회원자회는 '네모산수'에서 버선의 아름다운 선을 이용한 회화를 선보이고 이매리씨는 설치작품 '쑥·뽕' 드러



류현자 작 '네모산수-사모곡'

내기 은폐하기'를 통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사물의 중층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참여 작가는 류현자 박수옥 송차자 영숙 이영민 임희진 정송규 정순이 조미영 한지희 채경남씨 등이다. 문의 062-236-2520.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흑백영상에 담긴 한국탑의 자태

장선필씨 24~30일 광주QV갤러리서 사진전

불교 문화재인 탑을 영글에 담은 사진 작가 장선필씨가 '한국적 탑과 (塔婆)의 풍경'을 주제로 24~30일까지 광주QV갤러리에서 작품전을 갖는다.

문화유산 연구소장을 맡고 있기도 한 그는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탑을 작품으로 조명함으로써,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전시를 마련했다.

그는 작품의 주제인 탑을 부각시키기 위해 흑백영상을 고집한다. 컬러

를 사용할 경우 탑 주변의 나무와 숲 등 주변 사물들의 색감 때문에 탑의 진면목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흑·백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빛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온갖 풍상과 세월을 견뎌낸 탑의 다양한 모습을 오히려 드러내고 있다.

중앙대학교 사진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순천대학교 사진예술학과 겸임교수와 문화재 사진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문의 062-228-2446.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서울서 '꿈을 찾아 떠나는 미술강좌' 현장 실습

광주미술관회

사단법인 광주미술관회(회장 김응서·사진)가 24일 서울시립미술관과 예술의 전당에서 '꿈을 찾아 떠나는 미술강좌' 현장실습을 진행한다.

모네타전과 오르세 미술관이 열리고 있는 서울시립미술관과 예술의 전



당에서 열리는 이번 현장실습은 하계훈 단국대 박물관 경영과정 수업교수의 지도로 전시 관람, 토론 등

으로 진행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뮤지컬 '캣츠' 140여회 관람한 매니아 박정순씨

"볼 때마다 늘 새로운 감동 느껴요"

최근 '캣츠' 공연이 한창인 서울 국립극장에서 '캣츠 매니아' 박정순(31·인천)씨를 만났다. 박씨가 '캣츠'를 관람한 횟수는 무려 140여회. '캣츠'의 어떤 점이 그녀를 '고양이의 마력'에 빠져들게 만든 걸까.

얼굴이 알려지는 게 싫다며 사진 촬영을 고사한 박씨는 지난 2003년 12월 9일 '캣츠'를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당시 '캣츠'를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화려한 조명을 바탕으로 춤과 노래 등 오직 배우들의 모든 역량으로만 작품을 이끌어가는 게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멜로디와 역동적인 춤은 사람을 끊임 없이 빨아들이더라고요."

당시 '캣츠'는 국내에서 3개월 동안 진행됐고 박씨는 무려 108번을 관람했다. 거의 매일 찾아오는 그녀를 배우들도 기억했다. 주변배우들의 몸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가끔 '언더스터디'가 무대에 선다. 한 주연 배우는 "내가 무대에 선 것보다 당신이 극장을 찾은 횟수가 더 많을 것"이라며 우스갯 소리를 했다. 박씨는 '캣츠'를 관람할 때마다 가장 앞자리를 고집한다. 고양이들의 세세한 움직임을 가장 정확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앞에서 고양이가 눈빛을 맞출 때 너무 행복하죠. 앞줄에 앉으면 배우들의 기가 막 느껴져요. 남들은 왜 똑같은 공연을 계속 보냐고 하지만 볼 때마다 새로운 매력을 발견해요. 오늘 본 고양이 내일은 또 달라져 있는 걸 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박 씨가 '캣츠'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음악이다. '메모리'도 좋지만 선지자 고양이가 부르는 '고양이에 관한 예의'는 박씨가 가장 좋아하는 곡 중의 하나다. '펠리클 파티'의 파워풀한 군무 역시 박씨가 가장 아끼는 장면 중 하나. 특히 젊어진 올해 투어팀의 춤은 더욱 다이나믹해 공연을

볼 때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걸 느낀다. "무대 위를 유심히 보시면 각각의 고양이들은 한 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각각 다른 동작을 하며 '연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내한팀의 공연은 15번 정도 관람했다. 9월 광주 공연은 토·일요일 공연을 예매해 왔다. 물론 대전 공연도 같 것이다. 2년전부터 '캣츠'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알고 박씨는 '캣츠'를 들어봤었다.

'캣츠' 뿐 만 아니라, '오페라의 유령'을 60번 봤고 '라이언 킹'도 40번 넘게 봤다. 독일이나 일본으로 원정 관람도

"배우들의 역동적인 춤 관중을 빨아 들이죠"

"오페라의 유령" 60회·'라이언 킹' 40회 관람

다닌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박씨가 감당하기에는 티켓값의 부담이 만만찮다.

"남들은 미쳤다고 하죠. 하지만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열정을 쏟는 건 진정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 또래가 관심 갖는 명품이나 이런 것 대신 저는 뮤지컬에 열광한 거죠. '캣츠'는 내 인생이다' '캣츠'는 젊은 날의 내 열정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악연 일수도 있지만(웃음)."

박 씨가 전하는 공연 관람 팁 하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양이들의 면면을 꼭 살펴보고 가세요. 정말 다양한 고양이들이 등장하거든요. 많이 기억다니는 고양이는 귀여운 아기 고양이들이랍니다. 또 항상 볼 어다니는 고양이가 있는데 찬찬히 살펴보면 상동이에요요." /김미기기자 mekim@kwangju.co.kr



지난 2003년 이후 무려 140번이나 '캣츠'를 관람한 박정순씨에게 2003년 공연팀이 직접 선물한 액자(사진 위)와 '캣츠' 관련 자료들.

'남북 문학용어사전' 나온다

문화예술위, 내년 6월 출간 예정

북한 문단서 사용 용어까지 수록

근대 이후 남북한 문단에서 독자적으로 출현한 문학용어들을 한데 수록하고 해설한 가칭 '통일문학용어사전'이 나온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통일문학용어사전 편찬위원회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문학 용어를 중에는 오용되거나 뜻이 불분명한 것이 많다"며 "우리 문화 현실에서 출현한 용어들을 정확하게 해설한 새로운 용어사전을 만들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편찬위는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현재 북한 문단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까지도 새 사전

에 수록, 첫 남북 문학 용어사전으로 꾸밀 계획이다. 편찬위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문학사전들은 서양문학을 토대로 서양의 문예이론을 주로 해설한 것으로 한국의 문화적 현실에서 출현한 문학 용어들이 많이 누락돼 있거나 그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예컨대 '참여문학'에 대비되는 '순수문학'이라는 용어는 서양의 '순문학'이라는 용어와 다른 뜻을 지니고 있음에도 여전히 '순문학'과 혼동돼 사용되고 있다. 제3세계를 비롯해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서 탄생한 '민족문학'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다.

남북 문학 용어 500~600개 정도가 수록될 이번 새 용어사전은 500쪽 내외의 단행본으로 제작돼 내년 6월경 출간될 예정이다. 용어 하나마다 600~2천자 정도의 상세한 해설이 붙는다. /연남뉴스

매니아 '진달래꽃' 들으러 오세요

클럽 '곡스' 사직공원 앞 이전

25일 오픈 기념 무대 마련

오랫동안 조선대 인근에 터 잡고 있었던 클럽 '곡스'가 광주 사직공원 옛 KBS 광주방송총국 앞으로 이전하고 오는 25일 첫 무대를 마련했다.

이번 오픈 기념 공연에 참여하는 가수는 여성 록커 마야(사진), 시원스런 창법이 돋보이는 마야는 이번 공연에서 '진달래꽃' 등 히트곡과 즐겨 부르는 팝송들을 들려준다.

곡스에서는 매주 토요일 크라이닉, 프로야구 선수 출신 이상훈이 참여하고 있는 그룹 '왓', JK 김동욱 등 활발



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기 가수들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밴드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펼칠 계획

이다. 특히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는 지역과 서울의 록밴드들이 함께 어울리는 '펠릭' 공연을 진행하며 조만간 평일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주팀들이 꾸준히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미기기자 me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appy Time' and '영화안니' (Cinema Anni) featuring movie posters and promotional text.

Advertisement for '메가박스' (Megabox) listing movie titles like '사랑방선수와 어머니' and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Advertisement for '엔터시네마' (Entercinema) listing movie titles and showing a poster for '사랑방선수와 어머니'.

Advertisement for '컬럼버스시네마' (Columbus Cinema) listing movie titles and showing a poster for '사랑방선수와 어머니'.

Advertisement for '무등극장' (Mudeung Theater) listing movie titles and showing a poster for '심슨가족 더 무비'.

Advertisement for '제일시네마' (Jeil Cinema) listing movie titles and showing a poster for '사랑방선수와 어머니'.